

# 杜 仲

李 昌 福

*Eucommia ulmoides* Oliver

Tchang Bok Lee

*Eucommia*, an endemic genus of China was introduced at the first to Korea in 1930, and then medical Dr. Paik raised several stocks from the seed introduced after the 2nd World War through an officer of U.S. troop. The trees of the first and second introduction appeared to be somewhat different each other, and an argument aroused for the medicinal value of those. A male tree of second introduction was damaged as is shown in the picture A. The author made an operation on the 9th April 1977 and seems to be recovered perfectly as is shown in the photo B.

杜仲이란 옛날 中國에 杜仲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服用한 다음 道를 터득하였다는 古事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中國特産屬이며 一種으로 구성된다. 樹皮를 強壯劑로 사용하여 왔으며, 從前에는 全的으로 輸入에 依存하였으나 근래에는 여기 저기 이것을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30年 日本을 통하여 들어다가 서울 淸涼里의 林業試驗場構內에 심은 것 중에서 암나무 1 그루와 수나무 2 그루가 살아남아서 많은 種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처에 퍼져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4月 9日 밤 水原市 耳木洞 富國農園에서 자라는 杜仲의 숫나무가 怪漢에게 負傷을 당하였다(사진 참조). 耳木里의 富國農園에서 자라는 두중나무는 농림신문에서(75年 11月)자세히 취급한바 있으므로 淸涼里의 試驗場構內에서 자라는 것과 概略的인 비교조사를 하여보았다. 암나무는 鐵柵으로 완전히 둘러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갈 수 없었으나 숫나무는 바로 鐵柵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표시한 것과 같은 被害를 받았다. 金弘德 農園長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白斗鉉翁이 四川省에서 들여온 種子로서 키운 것이며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과는 差異가 있는 것같다고 한다.

坡州에서 閑暇하게 老後를 보내시고 있는 白翁을 만나 그 事由를 알아보았다. 日政時 白翁은 滿洲에서 病院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왕진길에 極貧한 家庭에서 어린 아기가 重病에 걸려 死線을 헤매고 있는 것을 無料로 치료해 주고 回復後에는 툭툭히 學費補助도 한일이 있는 정기준이란 青年을 故國에 돌아와서 다시 만났다. 當時 美軍通譯으로 근무하는 鄭氏는 白翁이 歸國한 후에는 本草學에 趣味를 갖고 계시는 것을 알고 마침 上司인 美軍이 生藥學者인지라 香港에서 四川產 杜仲種子를 몇알 가져왔다고 한다. 白翁은 이것을 가꾸다가 年老하여집에 따라 親分이 있는 金弘德園長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따라서 白翁은

\* 陳存仁, 1957, 中國藥學大辭典, 565, 香港上海印書館, 香港.

鄭氏가 四川省産이라고 하기에 그저 四川省産인 줄 믿고 栽植하여 왔다고 한다.

白翁은 四川産이란 점에서 杜仲이란 生藥名과 사철나무란 우리 이름을 부쳐서 키웠다. 生體보다도 藥用部位만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當時 사철나무를 杜仲으로 취급하여 온데서 생긴 錯誤였다고 본다. 그후 이나무는 지라고 白翁은 年老하여 學界에서 은퇴할 때 뜰에서 자라던 것을 (現在 耳木里에서 자라는 것) 친분이 두터웠던 金閣長에게 기증하였다고 한다.

겉으로 보아서는 差異點을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가을철 落葉期가 되어감에 따라 淸涼里의 것은 完全히 落葉이 되었지만 耳木里의 것은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1976년에는 1주일후인 10月 17日(1977년에는 前者가 10월 28日, 후자가 11월 9日에 落葉)에 落葉이 되었으며 잎은 보다 두껍게 보이지만 測定하지는 않았다. 잎에 돋는 털이나 잎의 크기도 상당한 變異가 있어 많은 개체를 다루지 않고서는 正確한 結論을 내리기 어려우려라고 믿는다. 꽃도 淸涼里의 것보다 늦게 핀다. 1976년에는 4月 30日에 피었다. 열매는 10月 下旬에 익으며 淸涼里의 것은 모조리 떨어진 다음에도 아직 푸른색이 있어 霜害를 받을 可能性이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採種하여 심은 것은 發芽率 100%로서 잘 자라고 있으며 過去 發芽에 失敗한 때도 있었는데 埋藏期間이 지나치게 길었고 또 覆土不注意 때문이었다.

淸涼里와 耳木里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각각 100粒式의 種子를 채취하여 열매와 종자의 크기를 測定한 結果 다음과 같은 數値를 얻었다.

항목 산지	열매 (mm)				종자(mm)		
	길이	나비	과경	과병	길이	나비	주두길이
淸涼里	30~40 (37;38%)	9~12 (11;58%)	1~4 (2;52%)	2~4 (3;75%)	11~14 (12;48%)	2~3 (3;5%)	1~3 (2;84%)
耳木里	3~41 (38;38%)	10~13 (12;65%)	2~3 (2;66%)	2~4 (3;75%)	11~14 (13;52%)	3 (100%)	2~3 (2;67%)

위의 表에 依하면 耳木里産이 多少 크다. 特히 열매의 나비에 있어서 前者는 11 mm가 58%를 차지하는데 後者は 12 mm가 65%이었고 種子는 前者의 길이에 있어서 12 mm가 48%인데 비하여 後者は 13 mm가 52%, 나비에 있어서 前者에서는 3 mm가 5%인데 비하여 後者の 경우 100%인 것등의 差가 있었다. 여기에 있어서 立地的인 條件과 樹齡等의 差가 있으므로 이 數値만으로 評價하기는 困難하지만 耳木里의 것이 보다 큰것만은 事實이다.

杜仲은 藥用植物이므로 藥用으로 使用되는 部分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前記 藥學大辭典에 依하면 四川, 貴州産이 가장 좋고 다음이 湖北 宜昌, 陝西省의 興安, 漢中이며 廣西에서도 產出되지만 質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卽 產地에 따라 各各 質이 다르다고 하였다.

質의 優劣을 判斷하는 기준은 樹皮의 두께, 緻密度 및 껍 質의 量等이며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根皮는 두껍지만 質이 硬하고 줄기의 中段 것은 껍질이 두껍고 皮質이 軟하며 質이 좋으나 가지의 것은 緻密하기는 하지만 얇기 때문에 藥效도 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地에

서 四川, 綏定, 洛陽產은 體質이 堅重하고 外皮가 단단하게 붙었으며 內皮는 검은 빛이 돌고 中間層에는 껍질이 많으므로서 가장 優秀하다. 巴河產도 좋으며 貴州, 施南, 寶慶等에서 生産되는 것은 껍질이 거칠고 가시우며 前者의 것 다음으로 쓸만하지만 其他地域의 것은 바탕이 생글고 껍질이 거칠며 껍질의 量이 極히 적으므로 質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많은 개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部分的인 測定에서 얻은 結果로는 10년생의 胸高部位 樹皮 두께는 4 mm(內皮는 3 mm)이었고 13年生에서는 6 mm(其中 內皮는 3 mm)이었으며 47年生(清涼里)의 地上 2 m 部位의 剝皮된 곳에서 얻은 數値는 內皮의 두께 3 mm, 外皮의 두께가 3 mm이었다. 耳木里에서 자라는 23年生 樹皮는 內皮가 5~5.5 mm, 外皮가 2~3 mm이었다. 外皮의 두께는 藥用部分이 아님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벗겨져서 떨어 짐으로서 두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內皮의 두께와 껍질 量의 多寡는 直接 藥効面뿐 아니라 經濟的인 生産面에 있어서 중요시 되고있다. 따라서 耳木里에서 자라는 것중에서 보다 두꺼운 內皮를 갖인 個體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資源開發을 위한 좋은 資源이라고 믿는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근처에 버리고 간 점으로 미루어 樹皮가 필요한 竊取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目的이 있었던 것 같다. 清涼里의 母樹도 이보다 前에 樹皮의 一部를 竊取 당하였으나 그러나 한쪽 부분은 남겨놓고 벗겨간 점으로 보아 이것은 그 樹皮自體가 필요하였는지 모른다. 何如間 이러한 貴重한 資源의 被害는 資源開發을 해치는 結果가 되고 있다.

지금 흔히 사용되고 있는 元杜仲이란 和杜仲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듯하다. 그러



A. *Eucommia* shows a portion of bark removed. B. Recovered completely after two months.

나 杜仲은 一種이기 때문에 杜仲이란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和 杜仲이란 唐杜仲, 思仲, 思仙, 木綿, 杜仲, 絲綿樹에 대하여 日本 사람들이 國內資源에서 代用品인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를 찾아서 붙인 이름이다. 杜仲이란 표찰을 보고 元杜仲이나 唐杜仲과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質問을 받을때 마다 오동나무와 참오동등과 참등과 같은 혼란이 또하나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杜仲을 杜冲이라고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말로 두중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대개 두충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한 길은 나아가서 杜仲을 두충이라고 읽는데 두중, 당두중 또는 원두중(杜仲, 唐杜仲, 元杜仲)이 정확한 발음이다.